

# C·O·N·T·E·N·T·S



02	Preface	
04	Special Report	I. 신년사 II. 신관 기공식 III. QI 경진대회 & 손위생의 날
10	Medical Column	갱년기
12	ZOOM IN	2019년 새롭게 변경된 주요 고시 안내
13	Hot Issue	2018 관리자 워크샵
14	Focus	우리 결혼했어요
16	Department Introduction	건강검진실
18	New News	통신교육 포상휴가
20	D-movie	영화 속 클래식
22	DanWon News	단원뉴스
24	Thank You	
25	단원편집부 모집 공고	
26	응급의료기관평가 A등급 획득	
27	요실금 TOT 수술	
28	진료과목 안내	

# 2019

##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이사장 김병열

사랑하는 단원가족 여러분!

기해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단원병원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미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로 진입하였습니다.

의료계에도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보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의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이 접목된 미래형 병원이 설계되는 등 많은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격변기 일수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부신 과학 발전과 숨가쁘게 달라지는 세상의 추세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격변기의 가장 큰 위험은 옛 논리와 해 목은 생각으로 대처하는 것” 이라고 지적인 미래경영학자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단원병원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원병원을 둘러싼 의료 환경의 변화는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원병원을 찾는 고객의 요구와 눈 높이가 높아졌으며 주변 의료수요의 증가도 눈에 띄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우리병원에게 환자 안전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최고의 수준으로 더 많은 환자에게 제공하라는 주문이자 명령이라고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올해 1월에는 신축 제2병원의 첫 삽을 뜨게 되면서 힘찬 도약의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향후 2년 내에 최첨단 제2병원(신관)의 건립과 제1병원(본관)의 리노베이션을 완성하여 새로운 의료 환경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단원병원으로 재 탄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단원 임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고 한 해 내내 가족 구성원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새 마음과 새 각오로 새해를 힘차게 시작합시다.

고맙습니다.

2019년 1월  
단원병원 이사장 김병열

# 단원병원 신관 기공식 “초일류 질환별 전문병원”에 한걸음 더

2007년에 개원하여 경기도 서남부지역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단원병원이 개원 11년만에 “초일류 질환별 전문병원”이라는 비전에 한발 더 다가가기위하여 신관 건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위치한 단원병원 신축부지에서 신관 기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기공식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지역 정·관계 인사 및 의료·교육계 인사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단원병원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축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신축하는 단원병원은 안산시 초지동 744-8번지 대지면적 2,407㎡에 건축면적 1,236㎡,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소아전문병동 및 검진센터가 건립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하층은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및 종합안내 1층, 혈액투석센터 2층, 소아청소년과 센터 및 산부인과 하이푸센터 3층, 건강검진센터 4층, 족탁 진료 및 가정간호센터 5층, 병동 6~7층, 휴게공간 및 직원 복지시설 8~9층으로 설립될 예정이며 오는 2020년 6월에 완공 될 예정입니다.

문용식 의료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단원병원이 10년 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산 시민 여러분의 사랑 덕택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여러분의 정성과 노고, 병원에 대한 깊은 신뢰가 원동력이 되어 꾸준한 발전을 이룩했고, 마침내 단원병원 제2병원 신관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의 사랑 속에서 오늘날의 발전을 이룬 단원병원은 신관에서 미래의 꿈나무들이 더욱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진료에 심혈을 기울여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으로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신관 기공식을 발판 삼아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병원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열정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뜻 깊은 행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증축되는 단원병원 신관에는 야간에도 소아과 전문의 진료료가 가능한 소아 중심전문병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아청소년 전문 치료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안산과 화성 등 경기 서남부 지역 거주 주민들이 최적화된 소아 중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기공식 축하를 위해 화환 대신 전달된 쌀 200포대는 저소득층을 위해 빛나교회, 초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지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단원병원에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 환자경험 증대가 곧 고객만족이다!! 2018 QI 경진대회 그 뒷이야기 속으로 gogo~

2018년 11월 23일 QI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QI 경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각 부서마다 1년동안 열심히 활동한 성과가 결실을 맺는 날이지요. ^^ 올해로 벌써 8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 사회 분위기가 변화한 만큼 의료기관에 대한 높은 질 만족, 환자 안전 등 질적 수준을 우선순위에 뒀어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에 환자의 질적 요구를 충족하는 환자경험관리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QI는 단순히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활동을 하는 질향상 뿐 아니라 환자안전과 고객만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8년에는 “환자경험, 고객만족”이라는 큰 타이틀을 주제로 각 부서에서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올해는 전보다 더 많은 부서들이 참가한 만큼 퀄리티 있는 작품들이 많아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는 매해 개최되는 경진대회인

만큼 경험도 쌓이고 QI가 무엇인가를 점점 알아가면서 개선방향에 대해 정확하게 캐치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최종 심사를 거쳐 외래 “고객만족도 향상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외래 예약제도 활성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표준화 된 과정을 통한 정맥염의 감소 및 예방”, 진단검사실 “진단검사실에 대한 환자경험 만족를 향상” 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면서 참가자가 아닌, 주최자가 되어 경진대회를 준비해보니 심사준비, 인원체크, 리허설 등등 병원 행사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준비와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도 단원병원 각 부서들과 함께 더 성장하는 QI실이 되겠습니다! 힘차게 파이팅!



QI 박상미

# 손씻기가 백신이지~ EASY~~!

2018년 11월 23일 ‘손씻기가 백신이지~ EASY~’ 라는 주제로 손위생의 날이 진행되었다. 손위생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리고, 손씻기 방법을 교육하고자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직원과 환자, 내원객을 대상으로 하여 총 600명 정도가 참여하였다.



감염관리 성기령



이사장님과 간호부장님, 간호차장님과 함께하는 손위생 라운딩에서는 손위생퀴즈, 손위생 수행으로 행사 참여를 유도하였다.

외래 내원객에게는 진료대기시간 중 손위생 방법을 직접 교육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구내식당을 방문한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손위생퀴즈와 손위생방법 교육을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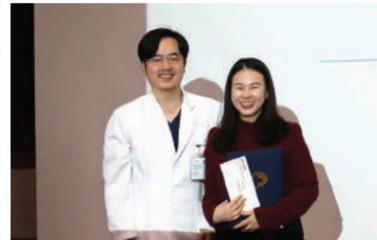
본관 지하 게시판에는 행사 일주일 전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손배지 배양검사 결과가 게시되었다. 손위생 시간 및 방법, 단계에 따른 손위생 효과를 직접 확인하여, 올바른 손위생의 중요성을 고취시켰다.



최우수상 : 외래



우수상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장려상 : 진단검사실



참가상 : 재활치료실/영양과



손위생은 단순히 시켜서, 또는 누군가 감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번거로운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바쁠때는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절대 안된다.

### 손위생의 시점

환자 접촉 전과 후, 청결/무균처리 전, 체액노출 위험 후, 환자 주변 접촉 후

### 손위생의 6단계

손바닥 → 손등 → 손가락사이 → 두 손 모아 → 엄지손가락 → 손톱 밑

### 손위생 시간

알코올젤 20~30초, 물과 비누 40~60초

항상 기억하고 습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위생은 나를 지키는 손쉬운 방법이며, 모두를 보호하는 백신임을 꼭 기억하자!!!

# 당신은 혹시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고 있지는 않나요?



산부인과 장시영



### 갱년기 장애 증상

열감, 얼굴과 몸이 붉어짐(안면 홍조), 따끔거리는 느낌, 발한, 신경과민, 우울감, 무기력증,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몸이 냉함, 현기증, 가슴 두근거림, 두통, 불면, 요통, 어깨 결림 등의 관절통증

여성이 주로 45세 이후가 되면 체내에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점차 줄어들면서 위와 같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한꺼번에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한 두가지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년 여성분들이 원인 모르는 관절통증, 수면장애, 가슴 두근거림 및 가슴 답답함을 느껴서 다른 여러 진료 과를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갱년기 장애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따라서 증상의 경감이 있기 때문에 갱년기 장애 증상이 심할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 후 여성 호르몬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수년 전 여성 호르몬제 치료에 대한 유럽 및 미국의 연구 결과 발표 후 뉴스를 통해서 유방암,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에서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한 편견이 심해져 그 때 당시 급격하게 치료하는 환자가 줄었습니다. 후속 연구에 의하면 유방암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이 치료를 받지 않은 군과 비교했을 때 심각한 정도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여 현재는 건강한 여성의 경우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치료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폐경 연령은 평균 47.6세이며, 대체로 갱년기 증상은 폐경 전후 2년 내 나타난다. 개인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고, 모두가 치료의 대상은 아니며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는 전체의 25% 정도가 치료를 필요로 한다" 라고 합니다.

## 여성 호르몬 치료



### Q. 갱년기 증상이 있는 모든 분들이 호르몬 치료를 해야 하나요?

**A.** 갱년기는 모든 여성분들이 경하게 또는 심하게 겪게 되는 일종의 과정으로 갱년기 증상이 심해져서 거의 일상 생활에 불편함, 무기력증을 호소할 경우 강력히 치료를 권유합니다.

50세 전후 평균적인 폐경 여성은 경한 증상의 경우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방의 혹이 있으며 모양이 양성 혹이 아닌 악성 혹(암)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조직검사를 통해서 확인 후 양성 혹의 경우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혈전이 생기는 병 또는 심장 판막 질환이 있거나 심근 경색 및 부정맥 등의 질환이 있을 경우 호르몬 치료가 혈전의 가능성이 높아져서 오히려 전신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치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지병이 있고 현재 혈압, 당 수치가 조절이 안될 경우도 치료를 권하지 않습니다.

\*\* 조기 폐경 (만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신 분)의 경우 다른 특별히 위에서 말한 질환이 없다면 반드시 호르몬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호르몬은 여성스러움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면서 골다공증을 완화(뼈가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조기 폐경이 되면 여성으로써의 노화가 진행이 되고 골다공증이 상대적으로 빨리 오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 후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의 위험성 증가로 노후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Q. 자궁을 수술로 제거하면 호르몬 치료를 해야 하나요?

**A.** 자궁을 수술하면 많은 분들이 생리를 하지 않으니 폐경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호르몬 치료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많이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몸의 장기는 자궁이 아니라 난소입니다. 그래서 자궁을 수술할 때 난소가 남아 있으면 난소에서 여성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의학적인 의미의 폐경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음)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래서 정상적으로 배란도 되고 생리 전에 느꼈던 유방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느낌도 생기고 생리 전 약간 두통이나 다른 불편감을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수술 후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 의학적인 폐경이 됩니다.

### Q. 여성 호르몬 치료는 평생 하나요?

**A.** 여성 호르몬 치료는 평생 하지 않습니다. 치료 시작 시기에 따라서 치료 지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0~20년 가까이 치료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여성호르몬 치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50대 중반 이후로는 환자 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마른 체형의 경우 골다공증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치료를 더 권하기도 합

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 복용을 중단했을 때 자연스럽게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해질 경우 치료 기간이 좀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1년마다 유방초음파, 질 초음파, 혈액검사(당, 고지혈증, 간기능 검사) 등 정기 검진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치료기간이 길어져도 치료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Q.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보조 약물, 생약제를 먹어도 될까요?

**A.** 요즘 종합 편성 체널, 흡소풍 등 많은 방송을 통해서 매우 다양한 여성 건강 식품, 보조 약물들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를 보고 있으면 중년 여성분들의 경우 3-4개 이상의 보조식품, 비타민 등 많은 걸 드시고 계셨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소개되는 식품이나 약물은 홍삼, 찹쌀, 백수오, 하수오, 석류, 달맞이유, 아로니아, 보이차, 레몬 밤, 브라질 너트 등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위의 예시된 것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기 예시한 것들은 실제로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과 자극이 되어서 질 출혈을 일으키거나 자궁근종, 선근증이 커지거나 유방 혹이 커지거나 유방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의 식품들을 여성 호르몬제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됩니다.

### Q. 여성 호르몬제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약이 좋은가요?

**A.** 여성 호르몬제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제약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호르몬제의 선택은 자궁의 존재 유무, 현재 나이, 자궁근종이나 유방 혹의 유무, 증상의 중증 여부에 따라서 전문의와 상의 후 결정을 하게 됩니다.

### Q. 호르몬 치료를 위해서 검사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치료 전 유방 초음파, 질 초음파, 혈액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결과가 정상이면 1년마다 주기적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유방 혹이나 자궁의 혹이 커질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체크하기도 합니다.

중년 여성이 원인 모르는 무기력증, 우울증, 관절통증, 두근거림, 수면장애, 안면홍조, 식은 땀이 나는 등의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호르몬 치료를 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 중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살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꼭 본인의 증상을 체크해 행복한 중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Zoom In

# 2019년 새롭게 변경된 주요 고시 안내



심사관 신혜승

### 1. 2018년 10월부터 뇌, 뇌혈관, 경부혈관 MRI 급여

뇌혈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결과 상관없이 급여 (단, 신경학적 검사가 이루어져야함)

### 2. 2018년 11월부터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급여 기준 확대

기존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행된 식도, 결장이 급여 기준에 충족할 경우 급여 적용 기준 급여로 시행했던 위점막하 박리절제술에 대한 급여 기준도 완화됨

### 3. 2018년 11월 격리실 입원료 급여 기준 추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수족구병, 노로바이러스

### 4. 마약류 관리료 신설

마약류를 포함하여 조제·투약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마약류를 실제 조제·투약한 날에 한하여 입원환자는 1일당 1회, 외래환자는 방문당 1회 산정

### 5. 소아진정관리료 신설

(소아)진정진료지침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하기 위해 진정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여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유도 및 진정 중 모니터링 감시, 진정 후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

### 6. 결핵환자 시술 없이 내시경 검사만 하는 경우도 진정관리료 급여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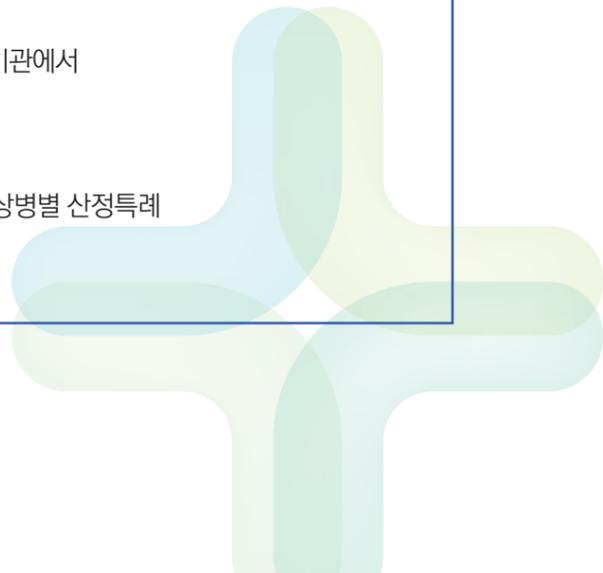
### 7. 기존 희귀난치질환 코드가 희귀질환,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

### 8. 기타 염색제 질환 산정특례 신설

승인된 기관에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 후에는 내원하던 의료기관에서 등록 질환 진료 시 산정특례 적용 가능

### 9. 암 상병별 산정특례 등록기준 충족해야 산정특례 등록 가능(3월 시행)

기존에는 암으로 인한 중증질환 등록 기준이 없었으나, 3월 1일부터는 암 상병별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등록 가능



## Hot Issue

# 소통·협진·혁신을 위한 2018 관리자 워크샵



2018년 12월 15일 단원병원의 발전에 대해 고민해보고 관리자들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자 의료진 및 부서장 60여명은 토요일 근무를 마치고 안산스퀘어호텔로 모였다.

### Section 1 '비전과 전략의 장'

단원병원의 또 하나의 도약을 위한 권순구 행정부장의 '신관브리핑'을 시작으로 김병열 이사장님의 '비전 2020', 최석광 병원장님의 '2019년 병원운영계획' 강의가 이어졌다.

2019년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관리자들과의 전략이 더욱 필요한 때인 것 같다.

### Section 2 '변화와 혁신의 장'

진료부에서는 팀웍 향상과 다학제 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골장 토론이 이뤄졌고 부서장은 3개의 분임으로 편성,

#### 1조 향후 10년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 2조 핵심인재로 가는 로드맵

#### 3조 부서간 소통과 이해

의 주제로 브레인 스토밍 기법을 일부 도입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다. 토론 결과를 정리하여 파워포인트에 맞춰 작성하고 각 조별로 발표하여 내용을 공유하였다.

### Section 3 '화합과 친목의 장'

역시 밥이 힘이다!! ^^ 자유롭게 뷔페식을 즐기며 못다한 토론과 수다 삼매경에 빠졌다. 매년 1박 2일로 진행되다 이번 워크샵은 당일 진행이 다 보니 맘껏 음주를 하고 웃음을 주는 분을 못봤다는 것이 살짝 아쉬웠지만 생각보다 이른 귀갓길이 나쁘지 않았다.

이번 워크샵은 외부 강사없이 온전히 단원병원 관리자들이 단원병원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워크샵이었다고 생각된다. 10년을 기억하고 함께한 관리자들이 모여 토의하는 모습은 평소에 교류가 없어 친분이 없던 부서장도 모두 하나 됨을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시간이었다.

이런 단합됨과 의지라면 향후 10년, 안산에서 우뚝 선 단원병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자부심마저 느껴지는 하루였다.



원무과 김은비

# 우리 결혼했어요



의료지원팀 전원석

**Q. 원내연애는 입사 몇 년차에 시작하셨나요?**

A. 저는 입사 2년차, 아내는 입사 6년차에 시작하였습니다.

**Q. 상대방이 동료가 아닌 이성으로 보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A. 병동에 드레싱 하러 올라가 환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일할 때 professional한 모습을 보며 점점 이성으로 보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A. 지금의 아내가 일하는 병동에서 연락이 오면 열심히 받고 1순위로 올라가 요청사항을 해결했습니다. (물론 다른 병동 연락도 잘 받고 열심히 올라갑니다. ^^) 아내가 지금 부서 전에 일했던 부서는 혼자서 근무하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일할 때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보이면 도와주며 점점 마음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Q. 상대방이 공식교제를 허락하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렸나요?**

A.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1개월 정도의 썸을 타다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Q. 교제당시 사내에서 통하는 둘만의 암호가 있었나요?**

A.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에 서로 통화하거나 마주칠 때가 많았습니다. 교제 시작하자마자 동료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암호 같은 건 없이 서로를 대했기에 오히려 편했던 것 같습니다.

**Q. 데이트는 주로 어디서 하셨나요?**

A. 저도 당직근무가 있었고 아내도 3교대 이다 보니 병원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저나 아내가 근무 끝나고 혹은 근무 전에 시간을 내어 만났습니다. 병원 밖에서는 걷는 걸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공원 데이트를 하거나 제가 혼자 독립하여 살던 집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Q. 데이트 중 주변 동료들에게 들킨 적은 없었나요?**

A. 교제 시작부터 숨기지 않고 알려져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데이트 했습니다.

**Q. 교제사실을 주변 동료들에게 언제 공개하셨나요?**

A.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고 확신한 때부터 이미 동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Q. 원내 연애를 꿈꾸는 직장인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A.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고 서로에 대해 진지하게 교제를 시작한다면 굳이 숨기기 보다는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서로를 소개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무 특성상 저는 전 병동을 다니는 업무이고 아내는 입사한지 오래되어 굳이 소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탄탄히 하는데 있어 의외로 힘이 됩니다.



**Q. 원내결혼의 장점은?**

A. 같은 직장에 있다 보니 부서는 달라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공적인 부분도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되고, 대화로 인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됩니다.

**Q. 원내결혼의 단점은?**

A. 근무가 맞지 않을 때는 함께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Q.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풀어주는 나만의 개인 필살 애교는?**

A. 아내가 화가 나 있을 때 말도 하지 않고 눈도 안 마주치기 때문에 아내가 웃을 때까지 저를 볼 때까지 계속 장난치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내 기분이 풀려서 장난도 받아주고 평소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Q. 아직도 상대방이 예뻐 보일 때 (멋져 보일 때)는?**

A. 쉬는 날이나 오후 근무일 때도 꼭 일어나서 출근 배웅을 해줄 때와 일할 때 열중하는 모습이 예뻐 보입니다.

**Q. 현재 서로에게 바라는 점은?**

A. 처음 만날 때 했던 약속처럼 우리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들로 싸우지 말고 지금처럼 사랑하며 이제 태어날 우리 아기와 함께 더욱 알콩달콩 살아가요!



# 건강한 삶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단원병원 건강검진실



건강검진실 강정희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주위 환경에 지속적으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상태를 '건강하다'라고 합니다.

한국인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현대 사회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과 식이 조절,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등 개인의 노력이 중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러한 노력에도 찾아오는 질환은 조기 검진과 조기 치료가 최고의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으로 전체 사망 원인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3대 원인은 현대의 의료 기술로 발병 초기에 진단 및 치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시행하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 꾸준한 노력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모든 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단원병원 건강검진실은 일반검진팀, 종합검진팀, 출장/특수검진팀으로 구성되어 각종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일반검진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원내 특수검진, 학생건강검진(초1, 초4, 중1, 고1), 채용신체검사 및 각종 증빙용 검진, 사업장 독감예방접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및 5대 암검진은 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간장질환, 심장질환, 폐질환, 빈혈 등 만성 혹은 중증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검진입니다.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은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 및 청력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등이 있습니다. 5대 암검진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으로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 종류들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성별 및 연령별 검사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하는 검진 확인 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검진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외래진료예약제도 서비스를 통한 사후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종합검진팀



전담 간호사가 체계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검진을 설계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맞춤 검사를 사업장 담당자와 협의하여 임직원들의 검진을 설계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검진종류를 통해 보다 나은 검진을 진행해 드리며, 검진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외래진료예약서비스를 통한 사후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출장/특수검진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사업주가 원하는 날과 시간에 맞춰 사업장에 출장을 나가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특수검진의 종류에는 배치 전 검진, 배치후 검진, 수시건강검진, 임시건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 죽기전에 꼭 가봐야하는 유적지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나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생은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포상휴가를 통해 새로운 곳에 대한 설렘과 도전,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정말 기뻐다. 11월 7일 5시 30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1970년대 같은 캄보디아로 시간 속 여행을 떠났다.



### #2일차 #앙코르와트 일출 #앙코르와트 #앙코르톰 #타프롬 #코끼리테라스 #바푸온 #바이온 사원

제일 기대가 컸던, 캄보디아의 하이라이트인 “앙코르와트 일출”을 보러 새벽 4시 30분에 들뜬 기분으로 숙소를 나섰다. 아직 캄캄한데 앙코르와트가 보이는 호수 앞의 일출을 보려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멋진 일출을 기대했지만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까? 날씨가 약간 흐려 멋진 일출은 보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

사원의 주요 건축물인 방추형 중앙 사당탑에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다. 다리가 풀릴 만큼 아찔하고 힘든 계단이었지만 올라가서 내려다 본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신비로웠다. 내가 이 곳에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앙코르와트 사원을 나와 캄보디아의 교통수단인 툽툽이를 타고 안젤

리나 줄리가 출연한 영화 토티의 촬영지로 유명한 “타프롬”을 구경했다. 이곳은 사원 건물을 집어 삼킬 듯한 나무들과 폐허의 미학이 돋보이는 곳이었으며, 나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앙코르 유적지중에는 “앙코르와트”와 “앙코르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앙코르톰은 사원이 아니고 해지로 둘러싸인 지역 전체를 의미하며, 우리는 그 중에 “코끼리 테라스, 바푸온, 바이온 사원”을 둘러봤다. 날씨가 많이 더워 지쳤지만 이러한 유적지를 언제 또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힘을 내어 눈과 마음속에 저장했다.

새벽부터 시작된 9시간의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꿀 휴식을 취한 후 현지인한테 마사지를 받으면서 고단함을 풀었다.



### #1일차 #프놈쿨렌 #브레아 앙툼 #와볼 #민속촌 #신랑찾기 #펍스트리트 #레드피아노

캄보디아 도착 후 첫날 눈을 땀 때 생각보다 맑은 하늘을 보고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의 첫번째 일정은 이번 여행 중 제일 거리가 먼 “프놈쿨렌”이다. 프놈은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프놈쿨렌은 쿨렌산이라는 뜻이다. 프놈쿨렌으로 가는길에 특별한 선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빨간 바나나였다.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있는 노란색 바나나가 나는데 쿨렌산에서만 빨간색 바나나가 난다. 맛은 우리가 아는 바나나 맛이지만 조금 더 달고, 또 약간 민트향이 났다.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현지 가이드분까지 놀랄 정도였다.

폭포를 가기 전에 “브레아 앙툼”이라는 불교 사원에 들렀다. 이 곳은 8m 길이의 누워있는 “와볼”로 유명한 사원이며 와볼 계단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올라가 구경했다. 크기가 큰 만큼 웅장함 또한 대단했다.

캄보디아 현지식으로 배부르게 점심을 먹고, 드디어 “프놈쿨렌 폭포”를 눈 앞에서 보게 되었다. 폭포 아래에서는 외국인들과 몇몇 현지인들이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다. 여벌 옷을 안 가져

온 우리는 시원한 폭포를 맞으며 찍은 기념사진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폭포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일정인 민속촌으로 향했다. “민속촌”에 도착하였을 때 “몽쳐야 뜬다”에서 정형돈이 참여했던 “신랑찾기 공연”이 시작된다고 해서 좋은 자리를 잡고 관람하기 시작하였다. 공연의 내용은 결혼적령기에 여자가 남자들의 구애를 받지만 거절하고, 관객 중에서 신랑을 찾는 내용이었다. 우리 일행 중에 신랑이 선택됐으면 좋을텐데... 아쉽게도 다른 팀이 참여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표정과 행동으로 나름 재밌게 공연을 관람하였다.

민속촌을 나와 저녁 일정으로는 “펍스트리트”를 방문했다. 우리나라의 이태원과 비슷했다. 캄보디아의 밤이 어둡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펍스트리트 만큼은 화려하고 음식점, 술집, 상점들이 많았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어울려 모인 장소였다. 그 중에서 “레드피아노”라는 술집은 앙코르와트를 배경으로 한 영화 ‘툰레이다’의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다녀간 유명한 가게라고 한다. 유명한 가게라고 하니 인증샷은 필수!!! 우리도 시원한 맥주도 마시고 인증샷도 남겼다. ^^



### #3일차 #튼레삽 호수 #쪽배체험 #꽃화관 #꽃반지 #왓트마이 사원 #킬링필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호텔 수영장에서 잠깐의 물놀이를 즐기며 여유로움을 만끽했다. 여유로움을 즐긴 후 3일 동안 머물렀던 호텔을 뒤로하고 짐을 챙겨 마지막 일정을 향해 버스에 올랐다.

버스를 타고 시내에서 제법 떨어진 “튼레삽 호수”에 도착했다. 호수를 둘러보기 위해 배로 갈아타고 호수 안쪽으로 들어가니 수상가옥들이 눈에 들어왔다. 여행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 신기했다. 한참 구경하고 쪽배로 갈아타는 선착장에 도착하여 카누를 타고 맹글로브 숲으로 향했다. 쪽배에 현지 직원이 한 명씩 배정되어 노를 저어주면서 간단한 한국어로 친절하게 주변을 설명해주며 직접 만든 꽃반지와 꽃화관, 그리고 캄보디아 지폐로 접은 하트까지 선물로 받았다. 너무 고마웠고, 감동받았다.

캄보디아의 마지막 행선지인 “왓트마이 사원”으로 이동했다. 왓트마이 사원은 예전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킬링필드”로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장소다. 킬링필드는 정치사상과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제2차 세계 대전 때 일어난 홀로코스트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가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 사원에 도착한 후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해골이 쌓여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많은 추모비도 있어서 맑은 날씨와 대조적으로 숙연한 분위기에서 사원을 구경했다.

캄보디아의 아픈 과거와 현실을 알고나니 우리나라도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에 더 가슴이 먹먹했다.

수없이 많은 감동과 추억을 가슴에 새긴 채 캄보디아를 떠나왔다. 풍요롭진 못하지만 넉넉한 인심을 가진, 따뜻하고 친절한 나라로 기억된 캄보디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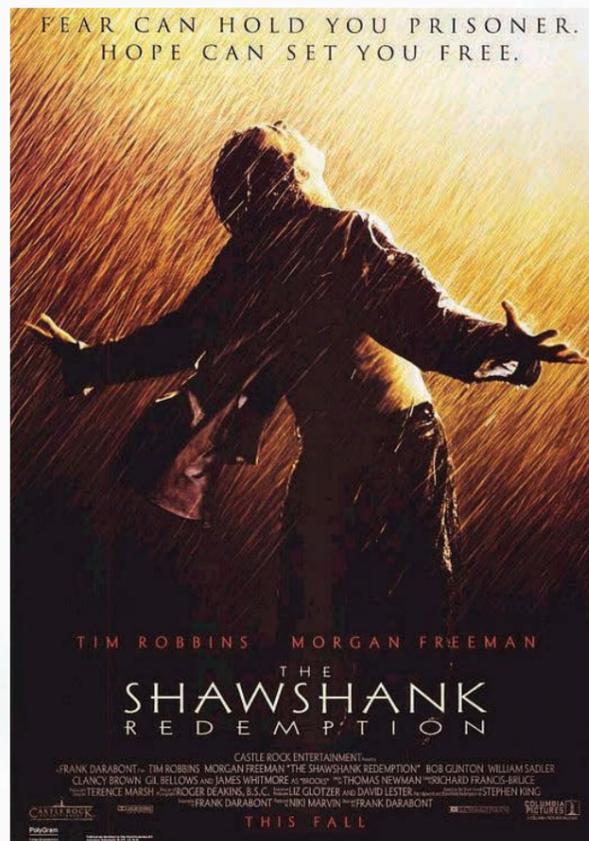
위래 여경희

# 영화 속 클래식



모차르트 - [피가로의 결혼] 중 '저녁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쇼생크 탈출 (The Shawshank Redemption, 1994)



오늘 소개해 드릴 아이템은 모차르트의 음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백작 부인과 수잔나의 2중창 [저녁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이며, 소위 [편지의 2중창]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이 노래는 영화 [쇼생크 탈출] 덕분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모차르트는 1756년 1월에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난 신동(神童)이지요. 아마도 이 음악을 제외하더라도 여러 영화에 사용된 O.S.T만 해도 여러 곡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곡은 제 주관적인 Ranking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곡이기에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수 없는 것이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YouTube에서 한 번 찾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Redemption이라는 단어는 소위 구원, 구함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데 그런 이유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우리말 제목으로 넘어오면서 혹자는 오히려 영화의 스포일러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개봉 당시 포레스트 검프라는 걸출한 흥행대작 때문에 그다지 큰 흥행을 누리지 못하다가 뒤늦게 관심을 끈 작품입니다. 예상 밖으로 탄탄한 구성으로 호평을 받습니다.

세상의 부조리, 내 안의 정의감 등으로 내적갈등이 나를 시끄럽게 한다면 조용히 이 곡을 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김옥곤

## 개원 11주년 기념식 & 송년의 밤



단원병원은 2018년 12월 7일(금) (개원 2007년 12월 3일) 개원 11주년을 맞이하여 AW 웨딩홀에서 개원 기념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하였다. 1부에서는 최석과 병원장장 김병열 이사장의 격려사와 함께 시상식이 진행 되었으며, 2부에서는 소통 전문가 김창욱 교수의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1년간의 추억을 회상하고 단합하며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 2019 시무식



2019년 1월 2일(월) 새해를 맞이하는 시무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시무식에는 김병열 이사장, 최석광 병원장, 문용식 의료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장과 이사장의 인사말 및 신년사를 시작으로 임명장 수여식, 임직원 상호간에 새해인사를 건네는 시간을 가졌다.

## 한국선진학교 의료봉사



11월 20일(화) 상록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선진학교에 의료봉사를 하였다. 김병열 이사장을 비롯해 소아과 최석민 과장 등 의료진들이 참여하였고 소변검사, 채혈, 일반문진으로 이루어졌다. 진료에 겁을 먹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모두 씩씩하게 검사를 끝내며 밝게 웃는 학생들을 보며 많은 보람을 갖는 의료봉사였다.

## 손 위생의 날 행사



11월 23일(금) 2018 손 위생의 날을 맞아 김병열 이사장을 비롯한 병원 경영진들은 각 병실과 외래 라운딩을 하며 올바른 손 씻는 법을 알려주었다. 환우분들과 내원객, 보호자 대상으로 손 씻기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고 이해를 높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평소 자신이 어떻게 손을 씻는지,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에 대해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고 손 씻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퀴즈도 진행하였다.

## 제 8회 QI 경진대회



11월 23일(금) 9층 교육관에서 제8회 QI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한 해 동안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QI 주제 활동을 펼쳤고, 1차 심의를 거쳐 5개 부서가 본선에 올라왔다. QI 경진대회는 매년 전직원이 부서별 질 향상 활동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측정, 우수부서를 표창하여 QI 활동을 장려하는 행사이다. 단원병원은 매년 QI 경진대회를 진행하여 더 적극적인 의료의 질 향상과 병원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

## 작은 음악회



12월 23일(일) 9층 교육관에서 환우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맞이 작은 음악회를 열어 환우들의 쾌유를 바라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약 150여명의 환우와 보호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색소폰 연주와 우쿨렐레 연주, 한국무용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었고, 추첨을 통해 경품도 전달하였다.

## 성탄절 소아병동 선물 전달 행사



12월 24일(월) 성탄절을 맞이하여 소아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빠른 쾌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타클로스과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였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낯설어 하였지만 크리스마스 인사와 함께 선물을 전달하니 즐겁게 웃으며 기뻐하였다. 하루 빨리 완쾌되어 집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깜짝 이벤트이다.

## 원시소방서 합동 소방 훈련



12월 27일(목) 오후 2시부터 단원병원과 안산 원시소방서와 합동 소방교육 훈련을 실시하였다. 별관 3층 건강검진센터의 가상 화재로 직원들이 그 동안 교육받은 훈련을 직접 체험하는 훈련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과 중환자실 환자들을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하며,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나리오로 진행 되었다. 병원은 유사시 환자의 신속한 이동이 우선이므로 평상시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던 시간이었다.

Thank You

Welcome

방지수 외래  
권태희 응급실  
송민혜 혈액투석실  
황지연 영양과  
김재영 원무과  
백종태 외래  
장형임 건강검진실

이미숙 중앙공급실  
이재영 진료부  
서영민 진료부  
박민아 외래  
김재현 집중치료실  
김현진 외래  
송미옥 약제과

이지선 응급실  
이원식 진료부  
신주연 영상의학실  
박주미 외래  
전연경 진단검사실  
김찬우 진단검사실  
안젤마 진료부

Thank You

김영석 진료부  
김영아 영양과  
김우람 의료지원팀  
김형하 집중치료실  
방인석 응급실  
이경주 건강검진실  
이현정 외래  
김용진 의료지원팀  
박재상 영상의학실  
갈상현 진료부

김민옥 5병동  
김채운 7병동  
김희정 가정간호센터  
문태기 응급실  
심형태 진료부  
정연희 건강검진실  
김미정 감염관리실  
주성훈 심혈관센터  
김다정 집중치료실

한태선 진료부  
박주미 외래  
강명진 심혈관센터  
문지혜 영양과  
박세례 6병동  
변상희 진료부  
서도연 대외협력실  
이 제 진료부  
정종열 진료부  
한철희 진료부

경조사

최해숙 7병동(결혼)  
채한교 응급실(자녀 출산)  
심민정 5병동(결혼)  
이미현 집중치료실(결혼)

안미래 집중치료실(결혼)  
박진아 진단검사실(결혼)  
장혜원 외래(외조모상)  
한설희 외래(결혼)

이영민 공급실(시모상)  
조연경 재활치료실(결혼)  
전혜진 진단검사실(자녀 출산)

단원누리의 편집부원을 모집합니다

까칠한 그대여~

편집의 아름다움을  
느껴라!

#적극환영 #발로썼니

#너나잘써 #언어영역PO점

남의 글에  
빨간펜 하고  
싶은 분!

남의 글에  
지적질 하고  
싶은 분!

마우스  
광클로  
스트레스  
푸는 분!

연애를  
글로  
배우신분!

- ★ 모집인원 : 00명
- ★ 모집기한 : 2019년 2월 28일까지
- ★ 활동기간 : 2019년 3월부터
- ★ 활동내용 : 원보에 들어갈 전반적인 내용 기획과 원고 의뢰 발간 1~2개월 전 원고 편집 및 수정
- ★ 문 의 : 대외협력실 이서운 (537)



 보건복지부  
2018 평가 결과

# 응급의료기관 평가 최우수 선정

## 2년 연속 A등급 획득!

모든 항목 All Pass

시설·장비·인력 법정기준 충족 여부 / 안전성 /  
효과성 / 환자중심성 / 적시성 / 기능성 / 공공성

단원병원은 **최적의 진료 환경**과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